

## 중국정사

宋史 권487 열전 제246 외국3 고려

하영선

2014/6/21

### I. 宋朝(950-1279)의 중요성

1. 内藤湖南(1866-1934) 唐宋变革说 “概括的唐宋时代观”(1922) 전집 8권  
중세의 종말과 근세의 발단: 귀족정치에서 군주독재정치로/화폐유통의 증가/학술문예의 성격변화
2. Robert M. Hartwell, “Demographic,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s of China, 750-1550”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2(2) (Dec., 1982)  
intraregional development/differential patterns of interregional settlement/ the formal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the social and political behavior of elites
3. Morris Rossabi (Editor)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3)
4. George Modelski & W. R. Thompson,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World Economy*(Columbia: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press,1996) ch. 9, “Sung China and the Evolving Economy: Tenth to Twelfth Centuries, K-Waves 1-4”
5. 葛兆光 『이 중국에 거하라(宅兹中國)』(서울:글항아리,2012) 제1장 송대 “중국”의식의 출현-근세민족주의사상의 기원에 관하여
6. 고병익, “중국정사의 외국열전: 조선전을 중심으로”, 『동서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7. 하영선, 『동아시아질서건축사:고대천하에서 미래복합까지(근간)』  
\*邓广铭《邓广铭学术论著自选集》(首都师范大学出版社 1994)  
\*Song Research Tools(<http://sunsite.utk.edu/songtool/>)

### II. 宋史읽기

\*宋史와 宋会要辑稿

長興 연간(930~933; 高麗 太祖 13~16)에 權知國事 王建이 高麗의 王位를 계승하여[後唐에] 사신을 보내어 朝貢하니, 建을 玄菟州都督으로 삼고 大義軍使에 充任하는 동시에 高麗國王으로 책봉하였다.

[建隆] 4년(963; 高麗 光宗 14) 봄에 [太祖]가 制書を 내려 이르기를 “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玄菟州都督·充大義軍使·高麗國王 昭는 태양의 정기가 뭉쳐 遼左에서 영웅으로 추대되어 箕子가 남긴 教化를 익히고 朱蒙의 옛 풍습을 따랐소. 그리고 구름과 바다를 관측하여 朝貢으로 帝庭을 채웠으니, 그 쏟은 정성을 생각하면 실로 매우 가상한 일이요. 그러므로 懿號를 하사하는 동시에 公田으로도 보답하며, 柔遠之恩를 미루어 拱辰之志를 표

창하는 바이오. 아! 萬里를 와 朝貢하니 진정한 충성이 아름답구려. 四封을 柔撫하고, 바라 건대 어지럽히거나 비뚤어지지 말고 영원히 東裔를 보존하여 마침내는 하늘의 도움을 받기 바라오. 食邑 7千戶를 더하여 주고 아울러 推誠順化保義功臣의 號를 하사하겠소.”하였다.

[雍熙] 3년(986; 高麗 成宗 5) 에 [宋 太宗이] 군사를 출동시켜 [契丹을] 복벌하였는데, 高麗가 契丹과 접경하여 항상 그들의 침략을 당하는지라, 監察御使 韓國華를 [高麗에] 파견하여 詔書를 가지고 가서 曉諭하기를, “朕이 외람되게 중대한 國事를 짊어지고 오랫동안 萬方을 통치함에 華夏蠻貊(夷)이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소. 어리석은 北裔(虜)가 王略을 침해하고 있으니, 幽州·薊州 지방은 중국의 강토였는데 漢·晉 때의 혼란한 틈을 타서 빼앗아 차지하였던 것이요. 지금은 우리 국가의 통치가 미치는 곳마다 書軌大同한데, 어찌 백성들을 狂俗에 빠져 있도록 둘 수 있겠소? 이제 군사를 독려·정돈하여 妖氣를 섬멸하려고 하오. 王은 오래도록 華風을 사모하여 항상 밝은 계책을 가지고 군은 절개로 禮義之邦을 편안히 하였소. 그런데 契丹의 변경에 인접하여 침략을 당하곤 하였으니, 쌓였던 울분을 씻을 기회는 바로 지금이요. 부디 군사들에게 거듭 타일러 서로 犄角의 형세를 이루어 隣國과 협조하에 힘을 합쳐 [契丹을] 평정하되, 한번 복을 쳐서 [적을 무찌르는] 雄勇을 뽐내어 멸망하게 된 寇賊을 쳐부수도록 하오. 좋은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 법이니 王은 도모하시오. 노획한 사람·소·양·재물·기계 등은 모두 高麗 장병들에게 주어 褒賞할 것이요.” 하였다.

앞서 契丹이 女眞國을 정벌할 때 길이 高麗 국경을 경유하게 되자, 女眞은 高麗가 [契丹을] 끌어들이어 戰禍를 꾸민 것이라 생각하고 [宋나라에] 말(馬)을 바치러 와 朝廷에 참소하기를, “高麗가 契丹과 우호 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여 後援으로 삼아 女眞 백성을 사로잡아가 돌려보내지 아니합니다.”하였다.[그 후] 高麗 사신 韓遂齡이 들어와 朝貢하자, 太宗은 急變을 알리기 위하여 女眞에서 올린 木契를 꺼내어 [韓]遂齡에게 보여주면서, “本國에 돌아가거든 사로잡아간 [女眞]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治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다가 [宋나라 사신] [韓]國華가 도착하자 사람을 시켜 韓國華에게 말하기를, 當道는 대대로 [宋나라의] 正朔을 받아 朝貢을 이행하고 있는데, 敢有二心하고 交通外國하겠소? 더구나 契丹은 遼海의 밖에 끼어 있는데다가 또 大梅·小梅 두 강으로 막혀 있으며, 女眞·渤海 등은 본시 일정한 주거가 없는데, 어떤 경로를 따라 왔다 갔다 하겠소? 그런데 뜻밖에도 참소하니 울분으로 가슴이 팍 막히겠소. 해와 달은 지극히 밝으니 明察하기 바라오.”

993 (고려 성종 12년) 요의 숙손령 제 1차 고려침입. 서희의 외교. 강동6주의 기초

[淳化] 5년(994; 高麗 成宗 13) 6월에 사신 元郁을 보내와 救援兵을 요청하면서, 契丹이 국경을 침입하였다고 하소연하였다. 朝廷에서는 북쪽 지방이 겨우 평온하여졌으므로 경솔하게 전쟁을 일으켜 국가에 일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여, 다만 詔書를 내려 위무하고 사신을 정중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이로부터는 [高麗가] 契丹의 압박을 받아 朝貢이 중단되었다.

#### 1004 송과 요의 澶淵之盟

1. 辽宋为兄弟之国, 辽圣宗年幼, 称宋真宗为兄, 后世仍以齿论
2. 以白沟河为国界, 双方撤兵。(辽归还宋遂城及涿、瀛、莫三州。) 此后凡有越界盗贼逃犯, 彼此不得停匿。两朝沿边城池, 一切如常, 不得创筑城隍。

3. 宋方每年向辽提供“助军旅之费”银十万两，绢二十万匹。
4. 至雄州交割。4. 双方于边境设置榷场，开展互市贸易。

1010 (고려 현종 원년) 요의 제2차 고려침입

1018 (고려 현종 9년) 요의 제3차 고려침입 강감찬의 귀주대첩

天聖 8년(1030:고려 현종 21) 詢이 御使 民官侍郎 元穎등 293명 파견. 려송교통은 광종 13년 (962, 송 건륭 3) 시작되어 1030년』까지 계속되다가 43년간 단절된 후 문종 26년(1072, 신종 희령 5)에 재개.

1038 元昊正式称帝建国，建元天授礼法延祚 宋夏 1次戰爭

1044 宋仁宗庆历四年 庆历和约：西夏向宋称臣，元昊接受宋的封号；宋夏战争中双方所掳掠的将校、士兵、民户不再归还对方；从此以后，如双方边境的人逃往对方领土，都不能派兵追击，双方互相归还逃人；宋夏战争中西夏所占领的宋朝领土以及其他边境蕃汉居住地全部归属宋朝，双方可在本国领土上自建城堡；宋朝每年赐给西夏银7万两，绢15万匹，茶3万斤；另外，每年还要在各种节日赐给西夏银2.2万两，绢2.3万匹，茶1万斤。宋仁宗同意了元昊所提出的要求，于是宋夏正式达成和议

熙寧 2년(1069: 高麗 文宗 23) 에 高麗의 禮賓省에서 福建轉運使 羅拯에게 公牒을 보내어 말하기를“本朝의 商人 黃眞註·洪萬 등이 와서, ‘轉運使가 [陛下의] 密旨를 받았는데[高麗와] 접촉하여 우호관계를 맺도록 하라’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國王의 뜻을 받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高麗가 궁벽하게 曠谷에 위치하면서도 멀리 天朝를 연모하여 祖上 積부터 항상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사신이] 왕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平壤이 大遼에 가까워 그를 친근히 하면 화목한 이웃이 되고 소원하게 하면 강한 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변방의 난리가 그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국력을 키우느라 한가하지 못하였으며, 久困羈縻하면서도 그를 불친절하게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述職을 어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지금 [黃眞·洪萬] 등이 서쪽으로 귀국하는 판에 公狀을 부치니, 답장을 받아 보고서 즉시 禮를 갖추어 朝貢하겠습니다.” 하였다.

[熙寧] 3년(1070: 高麗 文宗 24) 에 [羅]拯이 이 사실을 아뢰자, 朝廷에서 의논한 사람들도 契丹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하여 고려와 友好를 맺어야 한다고 하니, 神宗은 그렇게 하도록 윤허하고, [羅]拯에게는 대우를 후하게 하겠다는 뜻을 [高麗에] 알리도록 하였다. 徽가 마침내 民官侍郎 金悌 등 백여 명을 파견(1072)하니, 그들을 夏國 사신들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詔勅하였다.

元祐 4년(1089: 高麗 宣宗 6) 에 그 王子 義天이 僧侶 壽介로 하여금 杭州에 와서 亡僧註 189에게 祭를 올리도록 하였는데,[壽介가]“國母가 두 金塔을 가지고 가서 兩宮의 長壽를 위하여 바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자, 知州 蘇軾이 이를 거절하자고 上奏하였는데, 그 말이 「蘇軾傳」에 실려 있다.

<「蘇軾列傳」『宋史』卷338, 그는 神宗 元豐末(高麗 宣宗 2年)에 杭州의 和州가 되었다. 고려

와의 通交거절을 위한 上奏文이 다음과 같이 『宋史』「蘇軾列傳」에 실려 있다. 즉, 고려는 오래도록 入貢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宋으로부터의) 賜與의 厚利를 잃었는데 (지금에 와서) 朝貢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宋에서 그들을 대접함에 있어서 厚薄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로 亡僧(淨源)을 제사지내는 것을 계기로 祝壽의 禮를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祝壽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으면 장차 怨心이 일어날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고 厚賜를 하면 이는 정말로 그들(고려)의 꾀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마땅히 주는 것을 삼가할 것을 알아야 하고, 州郡에서 형편에 따라 이치에 맞게 이를 거절함이 가합니다. 저(고려의) 庸僧과 獠商은 자기나라를 위하여 일을 꾸미니 그 세력이 더 뻗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아픈 懲創을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宋의 조정에서는 그의 의견에 따랐다.

[元祐] 7년(1092; 高麗 宣宗 9)에 黃宗慤을 보내와 『黃帝鍼經』을 바치면서 구입해 가겠다는 서책이 매우 많았다. 禮部尙書 蘇軾이, “高麗入貢이 터럭만큼도 이익은 없고 다섯 가지 손해만 있습니다. 지금 요청한 서책과 수매해 가는 金箔 등은 모두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하고 아뢰니, 詔勅을 내려 金箔만을 수매하여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끝내 『冊府元龜』도 구입하여 귀국했다.

<『蘇東坡集』「奏議」通麗五害論(첫째 高麗使人이 매번 入貢할 때마다 朝廷 및 淮·浙 兩路의 제반 경비가 約十餘萬貫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는 亭館을 修理하고 人船을 調發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비하면 고려사신이 가져오는 貢品은 모두가 玩好의 無用品으로 백성의 부담이 너무 크다. 둘째 使人이 도착하여 그를 접대하는 人馬什物과 亭館을 수리하는데 民力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셋째 고려가 宋에서 가져간 賜與品을 契丹에 流出시킴으로써 契丹의 入寇에 도움을 주며, 넷째 고려가 名分上으로는 中華를 사모하여 來朝한다고 하나 그 實은 利를 탐한 것이며, 그들이 宋에 들어와서 山川形勢를 圖畫하고 (宋)의 虛實을 조사하고 있으니 어찌 善意로 받을 수 있으며, 다섯째 仁宗 慶曆年間(1040~1048)에 契丹이 盟約을 여기고 먼저 塘泊을 增置하여 中國의 曲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契丹과 與國(同盟)관계에 있는 (고려를) 招來하고 사신이 빈번히 入貢하면 其曲이 塘泊에서 더욱 심하여질 것이며, 다행히 지금 契丹이 恭順하여 문제가 없으나 만일에 異日에 이를 트집하면 조정이 무엇으로 이에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

政和 연간(1111~1117; 高麗 睿宗 6~12) 에 高麗의 사신을 國信使로 승격시켜 禮遇가 西夏國보다 위에 있었고, 遼나라 사신과 함께 樞密院에 예속시켰으며, 引伴官·押伴官 등도 고쳐 接館伴·送館伴이라 하였다. 『大晟燕樂』과 籩豆·簠簋·尊壺 따위의 그릇도 하사하고, 심지어는 睿謨殿 안에서 高麗 사신을 위하여 宴會까지 베풀었다

1112 楷가 귀국하는 송의 醫員들에게, “朝廷이 앞으로 병사를 일으켜 遼나라를 정벌할 것이라고 들었다. 遼나라는 兄弟의 나라로서 그들이 있다면 충분히 변방의 방패가 될 수 있지만 女眞은 狼虎와 같을 뿐이어서 사귄 수 없다.”

欽宗이 즉위하자 촉하 사신이 明州에 도착하였다. 御事 胡舜陟이 “高麗가 50년 동안이나 國家를 靡敝케 하였으니 政和 이후로는 사신이 해마다 와 淮·浙 등지에서는 이를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高麗가 과거에 契丹을 섬겼으므로 지금에는 반드시 金

나라를 섬길 터인데, 그들이 우리의 虛實을 정탐하여 [金나라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高麗의 使行을] 중지시켜 오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아뢰었다.

王徽 이후부터 사신이 끊이지는 않았으나 契丹의 冊封을 받고 契丹의 正朔을 사용하여 [宋나라] 조정에 올린 글이나 기타 문서에 대부분 干支를 사용하였다.

[高麗가] 契丹에 대해 한 해에 朝貢을 여섯 번이나 하였지만 [契丹의] 가렴주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契丹에서는] 항상, “高麗는 바로 우리의 奴隸인데 南朝는 무엇 때문에 高麗를 후하게 대우하는가?”라고 하였다. [高麗의] 사신이 契丹에 이르면 더욱 거만하고 포악스러워 館伴이나 公卿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함부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채찍으로 쳤다. 宋나라 사신이 [高麗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다른 일을 핑계하여 와서 정탐하고 사한 물건들을 나누어 가져갔다.[契丹이] 한번은 高麗가 서쪽으로 [宋나라에] 朝貢한 일에 대하여 詰責하자, 高麗는 表를 올려 사과하였다. 그 表의 대략 내용이, “중국에서는 3甲子만에 한번씩 朝貢하고 大邦에게는 1년마다 여섯 번씩 朝貢합니다.”하니, 契丹이 깨달아 [高麗가] 마침내 禍를 모면하였다.高宗이 즉위하여서는 金나라 사람들이 高麗와 내통할까 염려하여, 迪功郎 胡蠡를 假宗正少卿으로 삼아 高麗國의 사신으로 임명하여 정탐하도록 하였다.

1125 송금의 협공으로 요 멸망

1126 靖康之變으로 북송의 멸망

1127 남송의 건국

[建炎] 3년(1129; 高麗 仁宗 7) 8월에 高宗이 詔書を 내려 [高麗 사신이 오지 못하도록] 중지시켰다. “王은 悠久하게 基業을 지켜 옛날부터 文字와 車軌가 우리와 똑같았으며, 뗏목을 탄 사신에게 付命하여 朝貢하는 예를 계속 수행하여 왔소. 그 충성이 변함이 없는 것이야말로 神明에게 물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으로서, 마침 [사신이 온다는 소식] 듣고 정말 기쁘게 여겼소. 朕의 만년에 실로 변고가 많아 온 중국의 백성들이 강적인 [金나라의] 침입을 받았소. 그들은 이미 국경을 깊숙이 짓밟고서도 병사를 일으켜 침입을 중지하지 않고 있어 仗衛를 잠시 江湖로 移駐시켰소. 만약 이 때에 사신이 정말 온다면 官員이 [그 신변을] 경호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우니 변방의 난리가 그침을 기다려 聘問할 시기를 묻겠소.”

[紹興] 6년(1136; 高麗 仁宗 14) 에 高麗의 持牒官 金稚圭가 明州에 이르자 銀·帛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 이는 그가 金나라의 간첩일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紹興] 32년(1162; 高麗 毅宗 16) 3월에 高麗의 綱首 徐德榮이 明州에 이르러, “本國에서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하고자 합니다.”하고 말하니, 守臣 韓仲通이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렸다. 殿中侍御史 吳芾이, “高麗가 金나라와 국경이 인접하기 때문에 과거에 [高麗의] 金稚圭가 왔을 적에는 朝廷에서 그가 [金나라의] 간첩일까 염려하여 속히 귀국시켰습니다. 지금 兩國交兵하고 있는데, 徐德榮의 청이 어찌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를 진실로 오게 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변이 생길까 염려스럽고, 만일 오지 아니한다면 遠方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아뢰니, 詔書を 내려 중지시켰다.

1141 紹興和议: ①宋向金称臣, 金册宋康王赵构为皇帝. ②划定疆界, 东以淮河中流为界, 西以

大散关(陕西宝鸡西南)为界,以南属宋,以北属金。宋割唐(今河南唐河)、邓(今河南邓州)二州及商(今陕西商县)、秦(今甘肃天水)二州之大半予金。③宋每年向金纳贡银、绢各25万两、匹,自绍兴十二年(1142)开始,每年春季搬送至泗州交纳。绍兴和议确定了宋金之间政治上的不平等关系,结束了长达10余年的战争状态,形成了南北对峙的局面

隆興 2년(1163; 高麗 毅宗 17) 4월에 明州에서 高麗 入貢할 것이라고 아뢰었는데, 史官이 [高麗 사신을] 引見한 날짜를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아마도 [과거에] (洪)彝弼之詐가 아닌가 한다. 그 후로 [高麗] 사신의 발길이 마침내 끊어졌다.

慶元 연간(1195~1200; 高麗 明宗 25~神宗 3) 에 詔勅을 내려 商人들이 銅錢을 가지고 高麗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는 대체로 高麗와의 관계를 단절한 것이다

1206 징기스칸 몽골제국 건설

1227 서하 멸망

1234 금의 멸망

1279 남송의 멸망

### III. 천하질서의 시대구분

	정복	맹약	기미	회유	예치
선진					
한당					
송원					
명청					

### IV.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Modelski and Thompson, 1996: 137; Table 8.5)

Long Cycles	World Powers	Date	K-Waves	Global leading sectors
LC1	Northern Sung	930	K1	Printing and paper
		990	K2	National market
LC2	Southern Sung	1060	K3	Fiscal framework
		1120	K4	Maritime trade expansion
LC3	(Genoa)	1190	K5	Champagne Fairs

LC4	(Venice)	1250	K6	Black Sea trade
		1300	K7	Galley fleets
		1350	K8	Pepper
LC5	Portugal	1420	K9	Guinea gold
		1492	K10	Spices
LC6	Dutch Republic	1540	K11	Baltic trade
		1580	K12	Asian trade
LC7	Britain I	1640	K13	American plantations
		1680	K14	Amerasian trade
LC8	Britain II	1740	K15	Cotton, iron
		1792	K16	Railroads
LC9	USA	1850	K17	Electric power, steel
		1914	K18	Electronics, motor vehicles
LC10		1973	K19	Information industries
		2026	K20	